

3강.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3~4장)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각각 등장하는 주요인물의 대조는 매우 특이하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진 복음서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양 극단의 두 사람을 등장시킨다.

니고데모(3:1~21)

신분

바리새인: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위치는 대단한 존경을 받는 자리였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비난은(마 23)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 그리고 그들 자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유대인의 관원(정치가):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은,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다는 말이다. 산헤드린은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한된 자치권을 맡겼던 기구로,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기구였으나, 로마 통치 하에서 사형연도와 집행권만은 가질 수 없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니고데모가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선생(학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다(10).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그가 산헤드린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문제를 다루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을 것이며,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면 이 또한 그의 율법 선생으로서의 자리를 전제하는 것이었다.

사족: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헬라문화를 접한 상류층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함께 헬라식 이름을 붙여주는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헬라식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의 교육적인 배경이 좋았음을 드러낸다.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고, 어쩌면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노출이 되었던 학자였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이런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비중 있는 인물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느꼈고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다.

밤에 찾아온 사람(19:39)

그가 비겁해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서, 혹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찾아왔다는 해석은 개연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밤’ 또는 ‘어둠’은 상징적으로 사용된다.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밤은 빛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빛이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둠으로서(1:5) 무지함을 나타낸다.

(9: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가리킨다.

(11:10)“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밤은 빛의 반대 개념이다.

(13:10) “나가니 곧 밤이더라”

가롯 유다가 만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가 밤이라고 쓴 것은 그가 빛이신 주님을 배반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밤은 무지이고 이 무지는 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악한 것에 속한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 그는 비록 세상적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다. 그는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만족이 없었고 영적으로는 소경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지식과 종교의 무용함

(3:3)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비록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일을 처음부터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니고데모와 같은 당대 최고의 인물이 가진 지식과 종교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과 성령으로 남

(3:5)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겔 36:25~27)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적 이해는 거듭남에서 비롯된다.

(고전 2:9~16)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마리아 여인(4:1~42)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두 인물이다.

신분

사마리아인의 역사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한 후에, 앗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 사이에 발생한 혼혈민족이다. 이 혼혈족을 포함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자기들이 기존에 섬기던 우상도 여전히 섬기고 살았다(왕상 17:33, 41). 그들은 하나의 혼합신앙을 만들어낸 것이다.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거절을 당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고 경멸했으며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인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인이었다는 사실도 이 대조를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아서 그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알려져왔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비천한 신분이었다.

도덕적 삶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로서 정치적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사는 방탕한 여인이었다.

주님이 찾으신 사람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이었다.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우물가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낮 열 두시 즈음에 주님은 우물가로 가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4:7) 물을 좀 달라.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16)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 자신을 알라.”

- 목마른 인생
- 도덕적으로 붕괴된 인생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 생수가 필요한 인생

(4:10)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나를 알라.”

-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이다.

갈망에서 예배로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인의 관심이 영적 실재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고집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편견에 대하여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임을 말씀하셨다.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함/

거듭난 신자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므로, 신자는 장소라는 형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때가 왔다.

‘영으로’는 ‘성령님 안에서’를 의미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의지 뿐 아니라 마음, 감정, 정서 모두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뜻이다.

‘진리’로 예배함/

잘못된 전제와 개념으로 이상숭배에 이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진리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진리는 감각적 경험이나 기타 현실적 축복으로 대치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인식에서 오지 않는 종교적 감정과 흥분은 아무리 강렬해도 기록하지 못하고 참된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배의 교훈/

예배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배부름이고, 예배의 가장 큰 조건은 갈망이다.

회심이 회심을 낳다.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은 그녀가 의존하고 살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데서 확인된다(4:28~29).

(4:41~42)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수가성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기 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듣고) 믿었다.

(벧전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 고백을 했다.

두번째 표적(4:43~54)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두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었다.

두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왕의 신하:

여기서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세례 요한을 죽인—가리킬 것이다. 주님께서 여우라고 부른 인물이기도 하다(눅 13:32). 왕의 신하라면 누릴만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약 40km 나 떨어진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까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을 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모두지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다(4:48).

결국 주님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신하는 돌아가다가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종들에게서 듣게 되고, 낮기 시작한 시점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각임을 알게 된다.

결과는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가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이다(4:53).

이것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교훈: 사람은 다 동일하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들어죽게 된 사연으로 주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을 기회가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 만나셨다.

사람의 빈부귀천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필요로 한다. 니고데모에서 사마리아 여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만나신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다. 표적을 보았

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도덕적 곤궁함 때문에, 또는 사랑하는 아들의 병들어 죽게 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거듭남을,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다함이 없는 생수를,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제공해주신다.

눅뱀(3:14~16):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힘)인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인가?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나누신 말씀 중,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3:14~1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민수기 21장(4~9)의 사건이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게 하셨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뱀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가 뱀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말씀대로 장대 위의 뱀뱀을 보는 자들은 살았다.

주님은 장대 위에 '들려진' 뱀뱀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와 같이,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하고,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질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힘)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왜 모세에게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가령, 뱀을 죽여서 연고를 만들어 바르라든지, 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라든지, 뱀뱀이 달려있는 장대 앞으로 가서 기도하라든지, 혹은 뱀뱀을 만지라든지, 무슨 주문을 외우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3:15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뱀뱀을 쳐다본즉 살았던 것처럼, 나무(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 앞으로 기어가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왜 뱀뱀을 만지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냥 보라고 하셨다. 그들이 장대에 달린 뱀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뱀뱀을 쳐다보라는 것이다. 뱀에게 물린 상처가 얼마나 깊으냐, 기어갈 힘이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불뱀에 물려 죽음 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이 하나도 없다. 나무에 달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보는 자는 산다. 이것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믿음의 의미이다.